"쌓인 업 참회할 수 있어 기뻐"

신부전증 환자에 신장기증 지현스님

"속가때나 행자승 시절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장기 일부를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이식해 그 사람의 삶이 소생한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의 조그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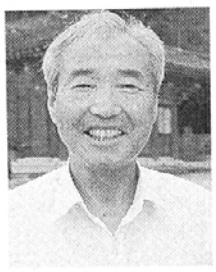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28세의 만성 신부전증 남자 환자에 자신의 신장 하나를 이식해준 지현스님은 신장 기증의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지현스님은 지난 4월 초파일 경남 울산 동국병원 사회사업가 이은주씨에게 가능하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끝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게 된 것.

지현스님은 올 3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현재 사미계를 수지한 초보스님(?). "이번 이식수술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참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몸이 한결 가볍다"는 스님은 퇴원(부산 개금동 백병원 621호)후 통도사로 들어가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근 기자〉

"옛 스님들 규율 서릿발 같았어요"

금산사 32년 지킴이
이 승 민 사무장



"30여년전 처음 금산사에 왔을 때만 해도 한겨울만 되면 찾는 이가 드물어지고 쌓인 눈위에 호랑이 발자국만 찍혀있는 깊은 산골이었지요."

지난 1964년부터 금산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산사 터줏대감 이승민 거사(72).

전국 사찰 사무장중 최고령일뿐 아니라 가장 오랜 근무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64년 건강이 안좋아 친구 권유로 금산사에 휴양차 온 그는 손이 부족한 금산사 경리 일을 보게된다. 처음엔 산사가 답답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어 떠나려다가 스님들이 3개월만 있어 보라는 만류에 3개월이 32년이 되어 버렸다.

예전 스님들은 신문·편지 같은 것은 절대 보지 못하고 밥이 질면 3천배를 하는 등 규율이 서릿발 같았다고 소개하는 이승민 사무장은 그때 스님들은 쌀이 없어 죽 먹기를 다반사로 하고 무명 승복을 여러번 기워입었다고 회상하며 요즘 스님들의 여유있음(?)과 비교해 보기도 했다.

"사찰 종무원들의 임기와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재량권도 주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그는 그래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사무장으로 들어올려고 하며 특히 본사 사무장일수록 '노하우'가 필요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산사=이경숙 기자〉

교차로

태아영가 위한 천도법회

자우스님(쌍문동 금강사 주지)은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출간과 함께 22일(오전 10시)부터 49일간 금강사에서 '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2)993-3744

''나눔의 집' 위원장 맡아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은 지난 1일부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보금자리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빼앗긴 조국…' 특별 자료전

남현스님(한일문제연구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대구 동아쇼핑 5층 전시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특별 자료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자료는 정신대 관련등 총 4백여점.

백중맞이 노인잔치 열어

법경스님(능인정사 주지)은 지난 10일 백중맞이 노인 잔치를 마련, 성동구 6곳의 노인정을 돌며 3백여 노인에게 떡, 음료, 과일 등을 공양했다.

인도철학회 새 회장에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지난달 24일 인도철학회의 '회장 추대 및 임원 보강'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에 추대됐다. 한편 원의범 전 회장은 고문에 추대됐으며, 정병조 정승석 이호근 윤기봉 교수가 새 이사에 선임됐다.

국토순례단과 백두산 올라

고은선생(본지 논설고문)은 지난 12일 동쪽나라 국토순례단을 이끌고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18일 귀국예정.

인니 대통령공로상 수상

최계월 코데코그룹대표(한국남방개발)가 11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궁에서 수하르토대통령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상은 인도네시아 독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제정된 것.

임정 청사복원기념식 참석

김종규회장(삼성 출판사)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으로 지난 11일 중국 중경에서 거행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복원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성일·엄앵란부부 해방이후 최고의 배우

KBS - 2TV 서울시민 1천명대상 조사

해방이후 한국최고의 인기배우에는 신성일 엄앵란 불자부부가 꼽혔다.

KBS-2TV '수퍼선데이'(13일 오후 5시30분)는 텔레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엄 부부가 최고의 인기 배우로 선정됐다.

40여년간 영화에 헌신하며 살아온 신성일 엄앵란 부부는 한국영화의 버팀목이 돼왔었다. 신성일 엄앵란 부부는 독실한 불자로 '불심을 생활화 하자'는 의지로 외출할때는 어떤 바쁜일이 있더라도 지장경을 1독하고 나간다고.

엄앵란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인 아집을 버리고 살아오면서 지름길로 가고싶은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불법에 의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

배꽃어린이집 원장 취임

권오성 법사(예비역 군법사회장)는 용산구 이태원 '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 (02)749-8007

여성불교 교양강좌

김묘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씨는 9월13일부터 서울견지동 회관강당에서 2개월과정의 여성불교교양강좌를 실시한다.

(02)738-5586

광복 50돌 기념 '눈꽃' 공연

우봉규씨(극작가)는 지난 11일 광복 50주년 기념작 '눈꽃'을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정신대 할머니 진료봉사
김주영 세란한의원장

"정신대할머니들은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세란한의원 김주영 원장.

진관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난 3월부터 혜화동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아 정신대할머니 7분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때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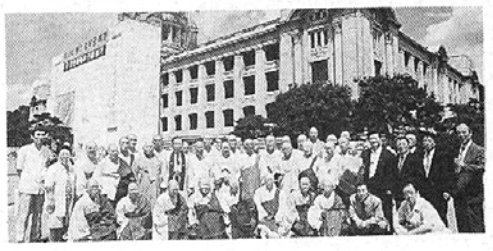
"진료 활동은 우리역사 지키는 일"

짜 의사가 필요한 곳에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중 정신대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91년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했다. 할머니들에게 침도 놔드리고, 뜸도 떠드리며 주로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김주영원장은 "할머니들을 오래 사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역사를 지키는 일"이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은〉

독립운동 순국선열 위령 추모대회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애국선열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광복 50주년 독립운동 순국선열 위령추모대회'가 지난 5일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봉행됐다.

삼중스님과 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가 주최한 이날 추모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추모사, 요시무라 일본참회사절단장의 참회사에 이어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조선 총독부건물 철거 설명회

불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설명회가 지난 4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 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관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 모임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문화국장 덕신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스님, 전국 비구니회회장 이광우스님 등 50여스님이 참석했다.

제5회 가산불교학술상 시상식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 주최 제5회 가산학술상 시상식과〈역대고승비문(고려편2)〉 출간기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동숭동 연구원 법당에서 열렸다. 올해 학술상에는 이종철(서울대강사)·김영욱(고려대강사)씨가 선정돼 지원금 2백만원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

경암스님등 美 한국전 기념비제막 참석

경암스님(워싱톤 보림사 주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톤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한국전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전 휴정협정체결 42주년에 맞춰 개최된 이날 제막식에는 한 미 양국대통령을 비롯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이자리에는 가수 김흥국씨도 동참했다.

탐 방
불교교수회

"불법연구에 세월가는 줄 몰라요"

원로·퇴직교수 중심 5년간 원효사상 등 탐구

◇ 불교교수회원들이 운제스님을 모시고 연화장세계 법당에 모여 경전공부에 여념이 없다.

"요즘 사람들은 원효스님을 신비화시키기만 좋아하지 진면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전 공부를 통해 원효스님의 진정한 도반이 되어 봅시다."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님들이 둘러앉아 강의에 경청하는 모습이 흡사 옛 서당처럼 느껴진다.

매달 셋째주와 넷째주 오후3시면 어김없이 불교교수회(회장 원의범교수)의 30여명 원로교수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조계사옆 교연빌딩 4층 연화장세계 법당에 모인다.

셋째주에는 '금강경오가해' 반과 넷째주에는 '금강삼매경' 반으로 나눠 3시간동안 연구와 토론에 여념이 없다.

5년동안 '원효사상' '열반경종요' '대승기신론' '법화경종요' '유심안락도' '원효사상해제' 등을 공부해왔다.

불교교수회는 비불교 전공교수들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교학에 탁월한 운제스님을 스승으로 87년에 출발했다. 외적으로는 교수불자연합 창립의 모체가 됐으며 내부적으로는 회원순강등을 통한 발표로 연구성과를 다지고 있다.

불교교수회는 "지금껏 공부해온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밝히며 "문호를 개방하여 일반불자들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원로교수와 퇴직교수가 주축이 됐기에 칠순전후 나이의 불교교수회 회원들이지만 정법을 향한 향학열은 젊은이 못지 않아 보는 이를 감동시키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Ⅰ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